

## 마태오 복음서\*

마태오 복음서 역시 다른 복음서들처럼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초기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을 자기 나름대로 다른 복음서 저자들보다 명백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곧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을 지니신 분께서 ‘주님이시며 스승’으로서 세상 끝날 때까지(28,20) 교우들과 함께 계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다윗의 자손이시고 또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며 그리스도로서 ‘스승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이 첫째 복음서는 마태오 사도가 ‘유다교 출신 교구들을 위하여’ 저술하였다고 보고 있으며(오리게네스),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던 지역인 페니키아에서 저술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80~90년대 아니면 그보다 이른 시기에 저술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한편 이 복음서에는 저자에 관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오래된 전통에 따르면, 마태오-레위가 그 저자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태오 복음서는 2세기부터 ‘교회의 복음서’로 여겨져 왔습니다. 마태오는 자기의 공동체를 위하여 복음서를 저술하고 이 교회 공동체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마태오가 속한 공동체의 복음서로 읽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복음서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태오 자신이 그려내는 것 같은 신앙인의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마태오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완성하셨음을 전하는 복음서로서, 교회는 ‘새 이스라엘’이 아니라 ‘참이스라엘’임을 선포합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을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귀의하지 않은 이스라엘이 이제라도 자신을 완성이기 위하여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리킵니다. 교회는 바로 이 이스라엘 안에서 자기의 뿌리를 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오 복음서 저자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의 자세를 본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들과 함께 자기의 전능하신 주님을 알아보고, 때로는 자기의 약한 믿음을 나무라시는 그분의 소리를 듣기도 하며, 또 ‘기쁜 소식’을 세상 끝까지 전파하라는 사명을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여 믿는 이와 그의 주님이신 예수님 사이의 관계가 활발해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분께서는 변천하는 세상 속에 당신의 현존을 드러내시면서, 당신께서 지상 생활을 하실 때에 내리신 가르침으로 신앙인들이 끊임없이 되돌아갈 것을 촉구하십니다.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께서 바로 복음서가 서술하는 나자렛 예수님과 같은 분이시라는 것, 이것이 마태오가 전하는 증언의 핵심입니다.

---

\* 1. <한국천주교 구교회의, 주석 성경 신약, 마태오 복음서, 49쪽~57쪽>의 내용에서 발췌·요약 정리하였습니다.  
2. 복음 본문 해설은 위 마태오 복음서 주석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였고, 여기에 그동안 본당에서 교우들에게 설명했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